



세계 랭킹 톱텐 '0'... 초라한 여자 골프

고진영 11위 유해란 12위 그쳐
2006년 6월 이후 최악 성적표
세계 1위 최다 배출 명성 먹질
현 랭킹 1위는 미 벨리 코르다

한국 여자 골프가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세계 랭킹 10위 내에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1일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수

로는 고진영(사진)이 11위, 유해란이 12위에 오른 것이 가장 높은 순위다.

지난주 9위였던 유해란이 12위로 밀려나 한국 선수가 10위 내에서 사라졌다.

현재 1위는 벨리 코르다(미국)이며 2위부터 10위까지는 지노 티피쿰(태국), 리디아 고(뉴질랜드), 릴리아 부(미국), 해

나 그린(호주), 인휘닝(중국), 후루에 야카(일본), 로린 코글린(미국), 에이절인(미국), 찰리 힐(잉글랜드) 순이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은 2006년 2월 창설됐으며 이후 한국 선수가 10위 내에 한 명도 없었던 것은 2006년 6월 2주만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우리나라 선수로는 한희원이 11위에 오른 것이 최고 순위였다.

이후로는 매주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한국 선수가 10위 내에 이름을 올린 것은 물론 세계 1위 선수도 가장 많은 5명을 배출했다.

지금까지 여자 골프 세계 1위에 오른 한국 선수는 2010년 신지애를 시작으로 2013년 박인비, 2017년 유소연과 박성현, 2019년 고진영 등 5명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미국이 4명의 세계 1위를 배출했다. 크리스티 커, 스테이시 루이스에 이어 현재 10위 안에 있는 코르다와 부다.

21일 순위에서 100위 내 선수가 가장 많은 나라도 한국이다. 한국 선수 28명이 100위 내에 올라 있고, 미국은 17명이다.

한편 여자 골프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세브론 챔피언십(총 상금 800만 달러)이 24일 개막한다.

미국 텍사스주 우드랜드의 더 클럽 칼턴 우즈의 잭 니클라우스 시그니처 코스(파72·6911야드)에서 열리는 세브론 챔피언십은 세계 여자 골프 5대 메이저 가운데 가장 먼저 열리는 대회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FA 최대어 이다현 “이젠 흥국생명 유니폼”

프로배구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최대어로 꼽혔던 미들블로커



이다현(원소속팀 현대건설)이 흥국생명 유니폼으로 돌아왔다.

흥국생명은 22일 이다현과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9-2020시즌 V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순위로 현대건설에 입단한 이다현은 빠른 템포의 공격에 강한 미들블로커로 성장해 왔다.

탄탄한 기본기와 민첩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활약해 온 이다현은 2021-2022시즌 V리그 베스트 7에 이름을 올렸다.

직전 2024-2025시즌에는 블로킹 1위(세트당 평균 0.838개), 속공 1위(성공률 52.42%)를 기록하며 V리그의 정상급 미들블로커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FA가 된 이다현은 지난 시즌 기본 연봉이 5000만 원 이하인 'C그룹'에 속해 뜨거운 영입전이 벌어졌고 마지막 승자는 흥국생명이었다.

흥국생명은 '배구 여제' 김연경(37)이 2024-2025시즌을 끝으로 은퇴하면서 전력 공백이 생겼고, 경기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이다현에 공을 들인 끝에 영입에 성공했다.

이다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원 소속팀인 현대건설을 포함해 국내 구단들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였고 결국 흥국생명을 선택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돼 매우 설레고, 요시하라 감독님과 함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제 역량을 증명하고 새로운 배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팬 여러분께도 늘 성실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흥국생명은 FA로 풀린 베테랑 세터 이고은과도 계약을 마쳤다.

요시하라 도모코 흥국생명 감독은 “이다현은 빠른 공격 템포와 탄탄한 기본기, 이고은은 위기 상황에서 침착한 경기 운영이 강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선수 모두 새 시즌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정상 미들블로커 이적... 육서영은 기업은행 잔류 가닥

공백이 생겼고, 경기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이다현에 공을 들인 끝에 영입에 성공했다.

이다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원 소속팀인 현대건설을 포함해 국내 구단들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였고 결국 흥국생명을 선택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돼 매우 설레고, 요시하라 감독님과 함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제 역량을 증명하고 새로운 배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팬 여러분께도 늘 성실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흥국생명은 FA로 풀린 베테랑 세터 이고은과도 계약을 마쳤다.

요시하라 도모코 흥국생명 감독은 “이다현은 빠른 공격 템포와 탄탄한 기본기, 이고은은 위기 상황에서 침착한 경기 운영이 강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선수 모두 새 시즌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리됐다. 흥국생명은 '배구 여제' 김연경(37)이 2024-2025시즌을 끝으로 은퇴하면서 전력 공백이 생겼고, 경기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이다현에 공을 들인 끝에 영입에 성공했다.

한편 현대건설의 '내부 FA'인 베테랑 미들블로커 양효진은 잔류 가능성이 큰 가운데 FA로 풀린 아웃사이드 히터 고예림은 페퍼저축은행으로 옮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FA 대어로 꼽혔던 아웃사이드 히터 육서영은 원 소속팀 IBK기업은행과 계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대건설의 '내부 FA'인 베테랑 미들블로커 양효진은 잔류 가능성이 큰 가운데 FA로 풀린 아웃사이드 히터 고예림은 페퍼저축은행으로 옮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FA 대어로 꼽혔던 아웃사이드 히터 육서영은 원 소속팀 IBK기업은행과 계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 결장... 토트넘 2경기 연속 敗

'캡틴' 손흥민이 발 부상으로 결장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홉스퍼가 노팅엄 포리스트에 무릎 꿇고 최근 두 경기에서 연달아 패했다.

토트넘은 22일(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노팅엄과 2024-2025 EPL 33라운드 홈 경기에서 1-2로 졌다.

2연패에 빠진 토트넘(승점 37)은 16위에 머무른 가운데 노팅엄(승점 60)은 3위에 랭크됐다.

토트넘으로선 치욕적인 패배였다. 토트넘이 노팅엄을 상대로 한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한 것은 1997년 이후 28년 만이다.

특히 토트넘은 '핵심 골잡이' 손흥민이 발 부상으로 결장한 정규리그 2경기를 모두 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토트넘은 전반 5분 만에 선제골을 내었다.

노팅엄의 안토니 엘랑가가 시도한 코너킥을 페드로 포로가 머리로 막아낸 게 페널티지역에 있던 엘리엇 앤더슨에



22일(한국 시간) 토트넘 홉스퍼 감독 앙게 포스테코글루(오른쪽)가 노팅엄 포리스트와 경기에서 패한 뒤 선수들을 위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게 연결됐고, 앤더슨의 슈팅이 로드리게스 벤투라의 몸에 맞고 굴절되며 골대로 빨려 들어갔다.

기세가 오른 노팅엄은 전반 16분 엘랑가의 왼쪽 측면 크로스를 크리스 우드가 헤더로 득점을 만들면서 순식간에 스코어는 2-0으로 벌어졌다.

반격에 나선 토트넘은 전반 19분 윌슨 오도베르의 중거리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전반 39분에는 마티스 텔의 슈팅 시도마저 골대를 외면하며 추격 골 사냥에 실패했다.



in 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